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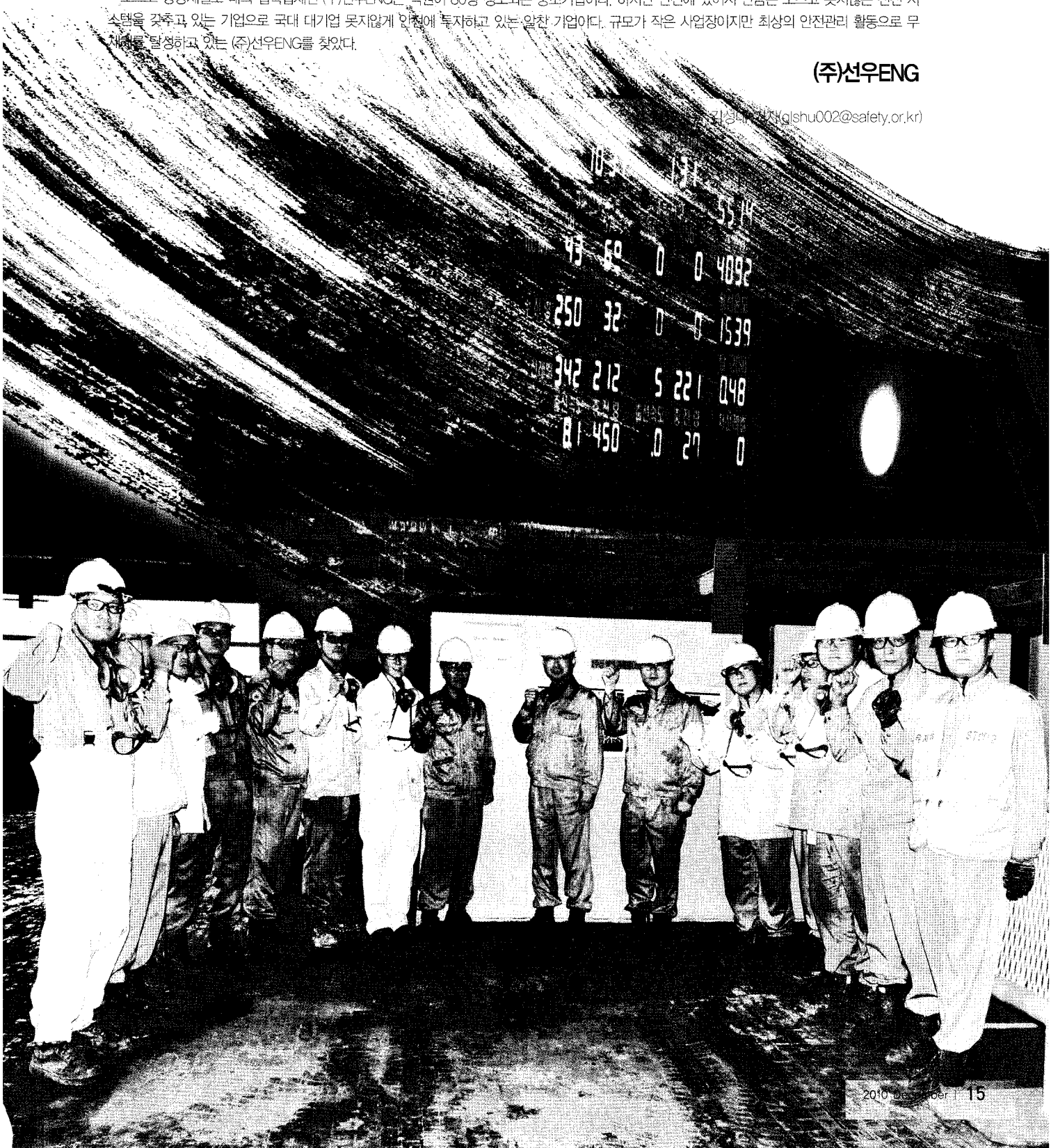
안전관리란 인간관계의 관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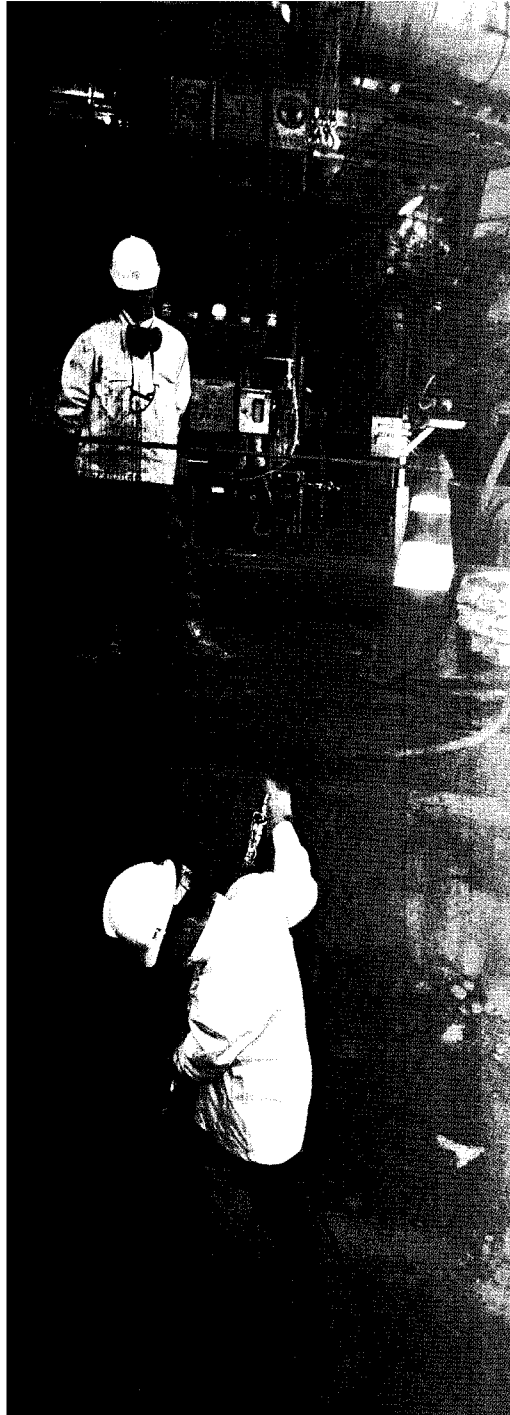
안전, 강요하지 않고 실천하게 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의 협력업체인 (주)선우ENG는 직원이 80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포스코 못지않은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대기업 못지않게 안전에 투자하고 있는 알찬 기업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지만 최상의 안전관리 활동으로 무 재해를 달성하고 있는 (주)선우ENG를 찾았다.

(주)선우ENG

간성대 기자 (gjsu002@safety.or.kr)





우리나라의 남쪽 끝 전남 광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선우ENG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의 협력업체로서 광양제철소 내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로(용광로) 공장에 축조 및 시공되어 있는 내화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작업강도가 높고 위험도 또한 높은 작업이기에 항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지만, 2005년 7월 1일 설립 후 지금까지 무재해 5배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안전관리란 인간관계의 관리이다' 라는 (주)선우ENG만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이에 적극 호응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전이 최우선

(주)선우ENG에서 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용광로에서 쇳물이 흐르는 출선구 내부의 내화물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이다. 글만으로는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능하지 못하기에 실례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일반 근로자들이 아닌 사형수, 무기수 등의 죄수들만을 작업에 투입하였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작업이다.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설립 후 지금까지 무재해를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생산성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곳엔 신입사원이 단 1명이라도 입사하게 되면 열의 없이 3일간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 후 선임자를 멘토로 지정, 신입사원이 회사에 적응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3개월간 선임자와 신입사원이 같이 회사생활을 하게한다. 생산성을 우선시 하는 회사라면 3개월간의 이런 안전활동은 업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작업시 안전조치

공정별 위험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1,500℃이상의 고온의 용선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데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접작업자는 알루미늄 방열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고로 현장에 진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상시 방열복 착용을 작업표준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상시 중량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항상 충돌, 협착의 위험이 있어 중량물 취급 5원칙을 제정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회전하는 개공기, 머드건, 매니플레이터 등의 설비에 작업자가 충돌, 협착 및 추돌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ILS(Isolation Locking System)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 전 작업관련자 전원이 구동하는 설비의 중간 Valve에 설치되어 있는 시건Kit에 시건하여 원초적으로 구동원을 차단하는 활동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고소작업 추락위험에 대해 개구부에 대한 안전작업 Deck를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서로 계도하여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잠재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료상호안전지켜주기



김규창 대표이사

목표달성을 위한 무재해는 의미가 없다!

직원들 간 원만한 유대관계가 형성 될 때 무재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항상 벽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장에서의 잠재위험을 작업자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인지 현재 무재해 5배를 달성하였고 6배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을 실천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무재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속이는 무재해의 결과는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아차사고라도 하나하나 관리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한 작업장에서 즐겁게 일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은 곧 내부 고객입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내부 고객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때까지 안전한 직장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천하는 안전문화

이곳 회사는 여타 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안전문화가 있다. SAO라는 안전관리활동과 g-COP이라는 학습동아리가 그것이다. 먼저 SAO 활동은 동료 간의 불안정한 행동을 서로 계도하여 주는 상호 안전지켜주기 활동으로, 관리감독자가 작업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칭찬과 대화를 통하여 작업자 스스로 불안전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활동 내용이다. 활동 결과는 사내 학습동아리인 g-COP에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직원 누구나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불안전 행동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누가 시키고 관리하여 하는 안전활동이 아닌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가 '안전Audit' 를 실시한다. 이때 안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매분기 마다 그 결과를 발표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원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

이 외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반드시 난간을 잡도록 하고, 건물목을 지날 때에는 눈으로 만이 아닌 손으로 지시하여 좌우를 확인하며, 매일 아침 작업 전 안전철칙을 복명복창하여 안전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하고 있다.

아낌없는 안전지원

이곳 회사의 안전교육 또한 특이하다. 일반적인 안전교육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특정한 교육장소로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인데, 이곳 회사는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경영진이 직접 5개의 작업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이 곧 내부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안전교육부터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 보호구는 두말할 것도 없다. 작업에 사용되는 보호구는 싸게는 수만원부터 비싸게는 수백만원까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 달에만 보호구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1,800만원 정도이다. 보건부분도 안전과 더불어 아낌없이 지원한다. 신종플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전직원이 백신을 접종토록 회사에서 지원을 했으며,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고자 일찌감치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계몽활동하여 현재는 전직원이 비흡연자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심터에 Video Game 기계를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5개의 작업현장 별 Health 기구 구매·비치 및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여 단결된 조직이 활동적으로 안전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율안전문화가 정착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확고한 자율안전문화로 최고의 안전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주)선우ENG가 무재해 6배수를 달성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